

현대오일뱅크

사보 독자 기사판

2023년 3월호를 보고

'독자 기사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당월 말까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현대오일뱅크> 사보에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기재하신 개인 정보는 선물 발송 후
한 달 안에 폐기됩니다.

기한 2023년 3월 31일



<현대오일뱅크> 3월호를 읽고 다음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번 호 '오일뱅크 스토리'에서는
우리 회사의 미래사업 도전을 다뤘습니다.
우리 회사가 추진 중인 3대 친환경 미래사업은
'블루수소', 친환경 화학·소재,
그리고 '□□□□ □□□□' 사업입니다.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 □ □ □ □ □ □ □

초성 힌트. **ㅎㅇㅌ ㅂㅇㅇ**



서강현 경영지원본부 지원팀 매니저

<오병 정보통> "말 못할 고민, 탈모" 칼럼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남성의 고민인 탈모. 저는 현재 탈모가 없지만, 주변에서 탈모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지인들을 보며 "혹시 나도?"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탈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안심이 됩니다. 병원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관리 꿀팁들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3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전국의 꽃 명소들을 소개하는 코너도 기대해 봅니다!



김선희 현대케미칼 환경팀 사원

<오일뱅크 스토리> "HD현대, <CES 2023> 대표 기업으로 우뚝서다"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HD현대 인스타그램에서도 본 적이 있었는데 사보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되니 회사가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3만 6천여 명이 HD현대의 부스를 찾아왔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짜릿했습니다. 바다의 혁신을 담은 전시관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HD현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인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반면 <블루 아카이브>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3년 경제"를 보며 최근 도시가스 비용이 엄청 오르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금리 인상, 집값 하락으로 인해 타격을 입거나 힘들어 하는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생각하니 속상했습니다. 하루 빨리 돌파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창 안전생산본부 설계1팀 선임매니저

<삶은 달걀이다> 정태오 싱가포르법안장님의 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님의 글귀는 언제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문구였습니다. 답답하다는 표현이 국어사전에서 차분하고 평온하다는 정도로 설명되어 있지만, 정주영 창업자님이 쓰신 의도는 조금 더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생각만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장님 말씀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씩이고 집착하는 강박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재 경영지원본부 홍보팀 매니저

<오병 파노라마> 칼럼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동안 사보에서 봤던 주유소 사진 중 가장 멋있어서 눈길 갔습니다. 특히 밤에 찍어 화려한 조명을 덕분에 더욱 멋있게 보여서 가끔씩은 주유소의 야간 사진을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초등학교 시절 열심히 하던 카트라이더와의 협업 역시 엄청 신기했습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협업을 진행하여 팝업스토어 형식의 주유소를 만들어도 젊은층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닌텐도 마리오카트와도 콜라보를 진행하면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주도 주유소도 궁금해요!